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8

성모기사

02



2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말씀을 잉태하신 성모님처럼 늘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 2월을 시작하며 02
김용기
- 보나벤투리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07
한규희
- 프란치스칸 영성 - 사랑 12
최상유
- 회칙「구세주의 어머니」에 드러난 교회 일치에 관점 16
권정대
- 말씀묵상 22
최창원
- 내면의 단장 24
박영철
- 항상 하느님과 함께 '인도 선교체험기' 26
신재희
-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34
권정대
- 속삭임 44
김종국
-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가림일 46
구원모
- 함께하는 이모저모 51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2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간안드레아

우리 교회의 전례력 안에는 교회가 특별히 정한 “성월”(聖月)들이 있습니다. 성 요셉 성월(3월), 성모 성월(5월), 예수성심 성월(6월), 순교자 성월(9월), 묵주기도 성월(10월), 위령 성월(11월)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성월은 아니지만, 다른 달들(1, 2, 4, 7, 8, 12월) 또한 어떤 고유한 이미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 4월은 대개 부활 대축일을 포함하고 있거나 부활 시기에 해당하는 달, 7월과 8월은 뜨거운 더위와 함께 지내는 열정적인 달, 12월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달…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물론 각자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월이 빠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2월을 따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뺐습니다. 저에게 2월은 “봉헌”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비록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가장 짧은 달이기도 하고, 겨울의 끝자락과 희미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어쩌면 성격이 분명치 않은 달이기도 하지만 2월의 둘째 날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그

런 이유로 많은 수도회의 서원식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2월을 맞이하면서 “봉헌”을 떠올리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 수도회 역시 수련을 마친 형제들의 첫 서원식과 종신 서원이 모두 2월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2월에 첫 서원을 했고,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헌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올 2월에도 많은 수도자가 “서원”이라는 공식적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서원을 지켜보면서 제가 서원하던 기억을 떠올려보게 되고, 또 제 자신이 봉헌의 삶에 얼마나 충실한지 새삼 반성하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전생담을 담은 “본생경”이라는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숲속에 탁발승이 찾아와서 동물들에게 부처님께 드릴 봉헌물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들개는 고깃덩어리를 가져오고, 수달은 물고기를 구해오고,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는 망고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토끼는 정해진 날짜가 다 되도록 마땅한 봉헌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나무를 잘 타거나 헤엄을 칠 재주도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던 토끼는 봉헌물을 바칠 날이 다 되었을 때, 숲속을 돌아다니며 나무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으기 시

작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토끼를 보면서 고작 나뭇조각들을 봉헌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비웃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각자의 봉헌물을 바칠 때에도 토끼는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나무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다 쌓은 토끼는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탁발승에게 말합니다. “저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약하고, 재주도 없어서 마땅한 봉헌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끼는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탁발승은 하늘의 신이 동물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변신한 존재였고, 하늘의 신은 토끼의 희생에 감동해서 토끼를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본 생경에서는 이 토끼가 부처님의 전생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굳이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인용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봉헌”의 의미를 잘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봉헌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전체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의 봉헌이나 다른 봉헌 행위들 안에서 내 소유물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봉헌의 전부인 듯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은 나를 봉헌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봉헌했는지, 혹은 봉헌하고 있는지 문득 반성해 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봉헌하지 않고, 내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말로만 “봉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서 마음 한편이 찢려옵니다. 봉헌은 수도자, 성직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보편적인 그리스도교 성소로 불림 받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봉헌의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지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영적인 권고를 통해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좋은 복됩니다. 실상,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묻어 두는 사람은 ‘자기 주’ 하나님의 ‘돈을’ 자기 안에 ‘숨겨 두는’ 사람이 되며, ‘가진 줄로 여기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고 18)

2월은 다른 달들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봉헌에 관해 반성하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2월은 다른 어떤 달보다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설 명절도 있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

있다면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봉헌의 의미와 우리 존재의 이유를 묵상하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2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상승의 전기문학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한규희 보나벤투라

이번에는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 보나벤투라의 생애를 되짚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에 대한 연대기는 완벽하게 확고하다. 그의 작품들에 대한 연대표 또한 완벽하지만, 그에 대한 실제 역사는 결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보나벤투라의 생애는, 로마 아라첼리 특별 총회에서 작은 형제회의 일곱 번째 총장으로 선출되기 전후,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a) 1217년부터 1257년까지, b) 1257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274년까지.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보나벤투라는 아직 매우 어렸다. 그는 조반니 디 피단자라는 이름으로 1217년 투시아(오늘날의 비테르보 지방)의 바뇨레조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보나벤투라 스스로 프란치스코의 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의 치유에 관한 일화가 확인해주듯이, 어릴 적부터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작은 형제들의 바뇨레조 수도원은 1222년 세워졌다. 자끄 귀 부제롤에 따르면, 조반니는 이 수도원에 푸에르 오블라투스

(Puer Oblatus: 수도 지원 아동)로 속해있었다.

그는 그 뒤 파리로 보내졌고, 1235년부터 1242년까지 인문학부에서 철학과 학생으로 공부하였다. 1236년 파리 대학교에서 조반니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헤일스의 알렉산더가 50세의 나이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그와 함께 신학부의 학장 직도 프란치스칸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다. 조반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라는 하느님의 영감을 강하게 느꼈다.

1243년 즈음 조반니는 프란치스코 수도복을 입었고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을 얻었다. 같은 해에 헤일스의 알렉산더와 라 로셴의 요한 아래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1245년 둘 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오도 리갈디와 멜리톤의 윌리엄 아래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1248년 그는 성서 학사 (baccelliere biblico)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다음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1250년부터 1252년까지, 명제집 학사 (baccelliere sentenziario) 학위를 취득하고 중세 신학의 기초를 형성했던 『피에트로 롬바르도의 명제집 (Libro delle sentenze di Pietro Lombardo)』을 가르쳤다. 1252년과 1253년에는 토론과 설교에 종사하였다. 1253년 또는 1254년에는 파리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1253년 말에는, 프란치스칸 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지만, 탁발 수도자들 (도미니칸과 프란치스칸)에 대한 재속 사제 교수들의 반대로 인하여 대학교에서 공식적인 인가를 얻지는 못한 채, 1253년부터 1257년까지 이 총장 직함으로 가르쳤다.

이 시기 동안 보나벤투라는 몇몇 작품들을 집필하였다: 『명제집 주해 (Commentaria in libros Sententiarum)』 (1250-1252); 『요한복음 주해 (Commentarius in Evangelium Ioannis)』 (1254-1257); 『그리스도의 인식에 대한 토론 문제집 (Quaestiones disputatae de scientia Christi)』 (1254); 『삼위 일체 신비에 대한 토론 문제집 (Quaestiones disputatae de mysterio Trinitas)』 (1255); 『복음적 완덕에 대한 토론 문제집 (Quaestiones disputatae de perfectione evangelica)』 (1255-1256); 『신학요강 (Breviloquium)』 (1257). 이 작품들을 통하여 보나벤투라의 사상은 뿌리내리고 이후 그의 후기 작품들 안에서 성숙에 이르게 된다.

1257년 2월 2일 보나벤투라는 수도회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7년의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관구들을 방문하였고, 각 관구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형제들에게 알리고, 무절제함을 없애기 위해 엄정함으로 자주 개입하였다. 또한, 그는 통치 활동에 있어 신학적 원

칙과 뛰어난 분별력을 부여하였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특별히, 수도회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Legenda maior Sancti Francisci)』(1262)와 『소전기 (Legenda minor)』(1262)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보나벤투라는 수도회의 두 번째 창립자로까지 평가받는다.

보나벤투라는 총장으로서 일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 소홀히 하지 않았다. 총장 선출 이후 쓰인, 그의 주요 작품들은 보다 더 깊게 수도회의 본성에 다가선 것들이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나벤투라는 이 관상적이고 신비적인 작품을 1259년,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라 베르나에서 집필하였다.

1273년 보나벤투라의 삶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한다.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그를 주교로 축성하고 추기경으로 임명코자 하였다. 1274년 5월 19일 그는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훗날 교황 니콜라오 4세가 되는, 아스콜리의 지롤라모가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 그후 2차 리옹 공의회의 폐막을 이틀 앞둔 7월 15일 리옹에서 선종하였다.

한 익명의 교황청 공증인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성인이요 탁월한 신학자에 대한 결정적인 인물상을 전해주는, 보

나벤투라에게 바치는 헌사를 작성하였다: “선하고, 다정했으며, 경건하고 자비로웠던 사람, 덕이 충만하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 (...)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베풀어주셨습니다.”

1482년 4월 14일 보나벤투라는, 콘벤뚜알 형제들(Conventuali)과 엄수주의 형제들(Osservanti)의 일치를 바라던, 프란치스칸 교황 시스토 4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그 뒤 1588년 5월 14일 또 다른 프란치스칸 교황, 시스토 5세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프란치스칸 영성 - 사랑

최상유 막시모

세례를 통해 하느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러한 부르심 안에는 선교와 이웃사랑의 소명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사랑하라는 소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이사 64,7)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에게 첫째가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 둘째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마르 12,33)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모여 사는 커다란 공동체인 생태계. 인간은 이러한 커다란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생태계의 주보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성인이 살아갔던 삶이 생태계와 어우러져 살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작품이고 그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고 있다.

“프란치스코의 가장 높은 지향과 주된 바람과 최고의 결심은 복음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이었고,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열의를 다하여 애타게 갈망하는 온전한 정신과 뜨겁게 타오르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었다.”(1첼라노 84) 이러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을 위한 생활양식, 즉 회칙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樣式)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 교황님께서 나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유언 14-15) 그래서 인준받은 회칙의 처음과 끝은 복음을 실행하고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인준받은 회칙 1,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할 것입니다.”(인준 받은 회칙 12,4)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프란치스코에게는 소명이었고, 사랑의 실천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였고 하느님께 나아갔다.

“어디에서나 그는 늘 예수께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었고 입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나머지 다른 지체에서도 늘 예수를 모시고 다니었다.”(1첼라노 115)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진 이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로 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랑의 힘은 너무나 크기에 모든 덕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되는 “덕”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사랑을 지닐 때 인간은 부유해지고 다행스럽고 행복하며,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별거벗고 비참한 거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온 영으로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신 하느님

프란치스코의 삶을 말할 때 하느님께 대한 갈림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이 그렇게 살았고, 형제들에게 권고한 하느님 사랑의 길은 무한하신 하느님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었다. 하느님 사랑에 빠진 프란치스코는 사랑하는 하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게 된다. 프란치스코에게서 흘러나오는 기도 분위기,

영성의 특징, 형제회의 첫째가는 법은 사랑의 법이 되게 된다. 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첫째가는 계명을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이다.

“세속을 떠난 우리에게는 이제 힘써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밖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된 땅이 되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다합시다”(인준받지 않은 회칙 22,9-10)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의 삶은 하느님 사랑에 둘러싸인 생활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주 하느님을,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속량하셨고 오직 당신 자비로써 구원하실 주 하느님을, 불쌍하고 비참하며 썩었고 악취가 나고 배은망덕하고 악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과 용맹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모든 기운과 온갖 노력과 온갖 정열과 온갖 애와 온갖 욕망과 뜻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하도록 합시다.”(인준받지 않은 회칙 23,8)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 드러난 교회 일치의 관점

권정대 베드로

회칙은 마리아의 구세사적 위치를 그리스도의 구원신비 안에서 인간학적이고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회칙은 마리아가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형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회일치의 관점에서 삼위일체적 원리, 신앙의 관점, 실천적 문제라는 세 가지 원리로 정립하고 있다.

삼위일체적 원리

회칙은 재일치를 위한 신학적인 토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칙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는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 하느님께서 육화를 통하여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분으로 현존하며, 더욱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이 그를 선택하시어, 거룩하신 성령께 영원히 마리아를 위탁하셨다”라고 말하며 마리아 모성의 기원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 두고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마리아의 모성은 ‘계시와 신앙의 중심 실재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섭리’로부터 비롯되었다. 마

리아는 한 분이시며 삼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삼위의 구원 계획 속에 개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은총에서부터 마리아의 성성(聖性, Sanctitas)과 원죄 없으신 잉태(無染始胎, Immaculata Conceptio), 마리아의 승천(昇天, Assumptio)이 비롯되는 것이다.

개신교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동방교회 신자들의 마리아 공경과 찬미를 돌이켜 볼 때, 그곳에 삼위일체적인 차원과 그리스도 중심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마리아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의 관계, 마리아의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일치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마리아 교리에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마리아의 인격과 사명의 신학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명백한 관점은 재일치의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다.

신앙의 관점

회칙은 ‘마리아 신학의 본질적인 내용, 곧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참으로 현존하게 된 마리아의 신앙’을 특별히 강조한다. 마리아는 바오로 사도에 의해 ‘신앙에 있어 우리의 조상’(로마 4,12)이라 불린 아브라함의 신

앙을 이어받고 있다. 회칙은 마리아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 신앙의 증거가 위대하고 영웅적이며, 그 절정에 도달하고 있음을 말한다. 마리아는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하느님의 의지에 자신을 예속시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인격적인 응답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느님 의지에 순종하였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바로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특히 갈라진 형제들이 강조하는 ‘믿음(sola fides)’이라는 대전제에서 마리아는 신앙의 교사이자 앞서가신 분임을 일깨워 재일치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로써 마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점이 된다. 마리아가 당신 아들의 구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유비적으로 보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회칙이 말하고 있는 일치의 원리는 바로 ‘신앙’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칙은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이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뛰어난 마리아임을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재일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일치를 위한 실천적 문제

회칙은 재일치를 위해 신학적 출발점만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 신앙의 일치를 돕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인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께서 첫 번째로 분명하게 모범을 보여주신 ‘믿음의 순종’을 깊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가 모범적으로 실천하신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삶으로써 일치의 길로 인도된다. 교회 일치에 있어 성경적인 순종을 그리스도인 전체가 바라보게 하고 있다. 갈라진 형제들이 바로 이 신앙의 순종이란 점을 알되 특히 마리아 신앙의 모범을 깊이 느끼고 알게 된다면 바로 마리아는 분기점이 아니라 일치점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회칙은 그리스도교 재일치 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길은 바로 삼위일체론적인 방향과 영성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방교회 옛 전승 안에는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매우 풍요한 영적 보화가 있음을 확인한다.

모성적 중재와 교회 일치

회칙은 실제적으로 교회 일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회칙 제3부는 특히 교회 일치 문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마리아의 중재성(*mediatio materna*)에 관한 것이다.

회칙은 예수 그리스도 중개의 단일성(Mediatio unica)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교회는 오직 한 분의 중개자만 계실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르친다’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의 중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재’, ‘일치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중개에 참여’, ‘그리스도의 중개에 종속된 중재’라고 부르고 있으며, ‘마리아의 협력은 한 분 중개자이신 구세주 중개의 보편성에 종속적 성격 안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회칙은 공의회 교리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유일 중개와 마리아의 모성적, 참여적 중재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역사 안에서나 하늘의 영광중에서 그리스도의 중개에 종속되어 참여하게 된 마리아의 협력을 지적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중재에 ‘모성적 중재(母性的 仲裁, Mediatio Materna)’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성적(母性的, Materna)’이라는 형용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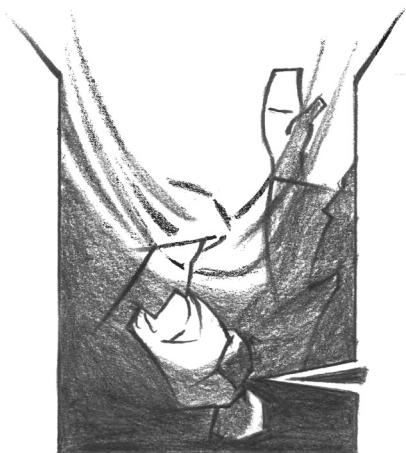
이 용어는 마리아의 중재가 그리스도의 중개에 참여하는 것이고, 유일한 중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분명히 밝히는 열쇠다. 이 중재는 자기 아들의 구원사업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마리아에 관하여 사용된 ‘중재’라는 용어가 목적하는 바는 육화된 말씀 때문에 성취된 참되고 유일한 중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회칙은 마리아 모성의 중재가 그리스도의 중개에 참여하는 것이고, 유일한 중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교회 일치를 향하여 이 문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주님 봉헌 축일 본기도)





“병자의 구원이신 마리아의 도움과 병원과 의료인의
수호성인이신 천주의 성 요한과 성 가밀로 데 렐리스의
전구에 병자의 날을 맡깁니다.”

(세계 병자의 날 제정 서한)

간장종지 화가

내면의 단장

박영철 요셉

잠에서 깨어 보니
어두움은 아직 대지를 덮고 있다.

제단 앞에 무릎 꿇는다.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들을 지켜 주시느라 주무시지도 못하셨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안녕, 어린 양자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지.
모기도 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구나!
밤새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나의 일이란다.
나는 쉬임 없이 영원히 깨어 있지”

밤새 그 누가 제단 앞에 봉헌하였는지
할짝 핀 국화 한 다발이
프란치스코 성상 앞에 놓여 있다.
아름다운 스카프를 두르고,
노오란 넥타이를 메고,
은빛 바지저고리를 입고,
당신 제단 앞에 조용히 머뭇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이른 아침부터 주를 찬송하는데
이른 아침 주님을 모시기 위해
나의 내면은
얼마나 정성스레 단장을 했는가?

예수님,
새 아침 당신께 봉헌하는 이 마음
맑은 내면의 창으로
당신을 찬송케 하소서.

항상 하느님과 함께 ‘인도 선교체험기’

신재희 베드로

선교체험 동안 느끼고 배우고 가슴에 품어왔던 내용들을 조그마한 공책에 메모해왔습니다. 인도의 수도원에서 때로는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글들을 바로 우리 성모기사지에 신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머물고 있는 강화 유대철 베드로 신학원에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파견지에서, 인도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하시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고, 겪은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용기 있게 그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인도 선교체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미소

내가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20대 초반, ‘하느님을 따르는 삶으로 수도회에 입회해야지’라는 마음을 다잡는 동안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태석 신부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신부님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척박하고 빈곤한 곳에서 그리고 전쟁이 도사리는 곳에서도 신부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무엇보다 나는 그 순간 신부님이 가장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괴로움만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곳에 하느님께서선 교사를 통해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 마치 그 옛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파견되었을 때 그와 함께하는 가난은 아리따운 정배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듯이….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수도회에 입회했다. 입회식이 있던 날, 그날은 한국으로 선교를 오신 우리 수도회 수사님들의 금경축이 있던 날이었다. 수도회 어른이신 황 신부님과 나 신부님 두 분의 수사님들이 축하받으며 활짝 웃으실 때, 나는 또 한 번 생각했다. 저 수사님들의 웃음을 닮고 싶다… 그렇게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수도원에서 형제들과 살아가면서 청원기를, 수련기를 보내고, 첫 서원을 하였다. 그 순간순간은 길게만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수도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신학교 4학년을 다니고, 학부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때의 내 마음속에는 어느새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

있고, 선교사에 대한 열망은 마음 한구석에 있었으나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감잡을 수 없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신학공부를 하면서 차차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겠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수도회 가족이 되기 위한 약속의 시간으로서 유기 서원자인 나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본다면, 그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작 ‘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까지 들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다. 아직은 어린 수사이지만, 지금 성장하지 못한다면 영영 이곳에서 어린 수사로만 남을 것 같았다. 그래서 신학원 원장님께 가서 당당하게(하지만 겉모습은 아주 소심하였을 거로 생각한다) 말씀드렸다. “1년 동안의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가난한 나라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때의 나의 심정은 이러하였다. ‘두려운 마음, 평생 편한 것만 찾으며 살면 어떡하지?’

수도원에 와서 하느님과 했던 약속들은 단지 입으로만 했던 말들에 불과한 걸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끙끙대며 매달려보았다. 하느님 안에서 형제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같았다. 하느님 안에서 형제들과 그리고 작은이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나를 원할 수 있도록 나아가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하느님의 작은 도구로서 살아간다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질 거라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게 이태석 신부님이 지녔던 미소, 우리 수사님들의 미소, 예수님을 닮은 미소이지 않을까….

나의 요청은 우리 관구에 받아들여져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몇 차례 학생 수사들을 보내보았던 인도 관구에 가서 선교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게 된 곳이 인도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에게 부족한 것,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때 그 도움의 작용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고, 선배 수사님들의 판단과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1년 동안의 선교체험이 선교라는 사명으로 계속 머물고 발전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나 자신에게 다짐을 해보았다.

“교회에서 파견된 복음 선포자들이 온 세상에 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자체를 심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활동을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한다.” (선교교령 6)

오늘날 ‘선교’란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선교의 본래 의미는 ‘파견되는 행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의 선교, 교회의 선교라고 말한다. 선교라는 본래 의미는 대단히 역동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선교체험을 다녀온 1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슴이 떨린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마음속 큰 보물을 얻어온 것만 같다. 이 보물이, 이 체험이, 언젠가 훗날 나의 체력으로 돌아올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낮설지만 낮설지 않은 곳에서의 삶

낮선 곳으로 떠남은 언제나 긴장감과 설렘을 안겨준다. 비자를 받고 나니 정말로 인도로 떠난다는 실감이 들었다. 짐을 정리하고 배낭을 꾸리면서도 그곳에는 뭐가 필요할까? 무엇을 챙겨갈지 생각하면서 다짐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자주 웃을 것.

항상 겸손할 것.

배우는 자세를 가질 것.

형제들과 싸우지 않을 것.

내가 있는 그곳을 사랑할 것.

인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

기도와 실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갈 것.

이 모든 것이 떠나기 위한 배움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낮설지만 낯설지 않은 곳으로 나의 수도생활의 여정을 이어 나가기 위해 여행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인도로 향하는 여정에 나섰다. 고맙게도 세 명의 수사님들이 배웅을 해주었는데, 전날 사제서품식이 있어서 사제품을 받고 함께 온 이형근 베드로 수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다. 인파가 많은 공항이었지만 새 사제 축복까지 받으니 하느님의 은총이 이번 여정에 함께하신다는 용기를 얻었다.

혼자가 된 나는 인천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남인도로 향했다. 한국은 겨울이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얇은 점퍼를 벗었고, 인도에 도착해서는 이미 땀에 젖은 반소매 차림을 했다. 아직은 선교체험의 초입이었지만 더운 나라로 가기 위하여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내 마음가짐의 허물을 벗고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러내는 것 같은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적도와 가까운 인도의 더위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도착한 남인도의 코치공항을 빠져나와 인도 수사님들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늦은 밤이라 덜컥 겁이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 부스를 찾아 나섰다. 인도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

였는데, 인도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중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전화에 교환원이 있어 통화하고 나온 요금을 지급하는 식이라고 했다.

그렇게 전화 부스를 찾아 인도 수도원에 전화해보니 아무도 받지않았다. ‘다들 주무시나….’ 자정이 다 돼갈 무렵 이어서 데리러 못 오는 건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간 남인도 지도를 꺼내보았다. 지도에 인도 수도원들을 표시해두었는데, 거리상으로는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수도원이 있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마중을 나오지 않을 짓을 대비해야 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하였는데, 기다리는 내내 낯선 이방인을 향한 인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 내가 이방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뭔가 모르게 흥분이 되었다.

‘아, 이곳이 인도이구나.’ 그렇게 감상에 빠져 공항 출구를 서성이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피터”라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수사님 두 분이 손을 흔들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통성명했다. “네. 제가 피터 신이예요.” 엘리야 수사님과 알프레드 수사님이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다. 반가움의 시작과 함께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시간약속 계산법을….

알프레드 수사님은 오래전 한국관구에 다녀왔으며 나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다. 한국의 수사님들 안부를 나누면서 가는 내내 인도식 영어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 귀를 쫓긋 세우며 듣다 보니 드디어 인도관구본원에 도착하였다. 내가 머물 방으로 엘리야 수사님이 안내해주셨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야 한숨을 돌렸다. ‘하느님 잘 도착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시작이 그리 나쁘지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고,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마 내가 낯선 곳에서도 낯설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굴색이 다르더라도, 말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생각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을 닮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그중 나는 이곳에서 프란치스코로서 형제들을 만났고 함께 어울리고 웃고 반가워하고 인사를 하며 수도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나에게 어떤 교훈과 감동과 사랑을 안겨줄지 인도선교체험의 첫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사 43,19)

권정대 베드로

T. 평화를 빕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 그분의 크신 자비와 도우심으로 2017년 12월 21일에 사제가 된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권정대 베드로 수사입니다.

첫 미사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모든 찬미와 영광, 흠숭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어머니이신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 우리 성모님과 모든 성인, 성녀들, 천사와 수호천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사랑과 기도, 온갖 정성을 다 쏟아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지난날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하시며, 그분께서 진정 나와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 부산 기장이라는 곳에서 자라왔습니다. 기장에는 수도원(삼덕)과 본당(기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삶을 살아오신 두 분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신앙

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곤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진출의 막을 여췄던
범덕레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초대 주임신부님으로 모신
제 출신 본당 기장 성당은 많은 수도회 신부님이 다녀가신
신앙의 못자리입니다. 제가 본당을 거쳐 가신 많은 신부
님, 수녀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고, 그분들의 영
향으로 이 길을 걷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직자, 수도자 가운데 유년시절 특별한 사랑을 주
셨던 배문호 바오로 신부님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과 미사
를 드리러 성당에 갈 때면, 미사 후 제의실에서 나오시는
신부님을 향해 달려가 안겼던 제 어린 모습이 아직도 기억
에 생생합니다. 그런 저를 신부님은 힘껏 들어 안아 당신
팔로 받쳐 들고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신자들에게
‘당신 친구’라며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어느 날, 배 신부님께 안긴 제가 신부님 팔에 수북이 난
털을 신기해하며 잡아당기면서, “신부님, 이거 뭐예요?”
문자 신부님께서서는 “오~빠드루! 이건 내 모기장이야~”라
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는 부모님
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이를 통해 신부님께서 사랑뿐만
아니라 유머와 재치가 가득한 분임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이태리 유학 중, 2017년 여름 한달 동안 사도직 체험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범 신부님, 배 신부님의 출신 관구였기에 의미가 남달랐고, 파도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시타델라(Cittadella)에서 배 신부님의 동생 안젤로(Angelo Paldani) 형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과 함께 신부님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배 신부님의 형님이시자 스페인에서 오랜 세월 선교 활동을 하였던 마리오 신부님의 묘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도회의 한국 진출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범 신부님, 그리고 그러한 삼촌을 따라 선교사가 된 두 조카 신부님들, 그리고 살아 계신 조카 안젤로 형제님... 묘마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넘어감을 느끼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한번은 이태리에 휴가를 오신 안현철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 당신의 출신 관구 아브루초 주(Regione Abruzzo)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안토니오 신부님뿐만 아니라 황마리오 신부님과 나 빅토리오 신부님의 출신 관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성모기사회를 시작하셨던 지새암 로코 신부님을 성체 성혈 기적으로 유명한 란치아노에서 뵈 수 있었습니다.

이태리의 한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란 씨앗이 뿌려졌고, 60여 년이 흐르면서 그동안 수도회를 통해 많은 결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 또한 그 열매 중 하나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수도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나, 첫 영성체를 하면서 강렬한(!) 사제 성소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소는 미래에 되고 싶은 막연한 꿈 가운데 하나로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시절 어느 날, 본당에 부제 실습을 나오신 한 수사님과 복사단 피정을 가면서 절 향한 주님 부르심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훗날 본당 주임 신부님이 되실(물론 그때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임동욱 안셀모 수사님께서 제게 “정대는 사제가 될 생각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왠지 모를 뜨거운 열정이 제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고, 복사단 피정 내내 수사님의 물음을 되뇌면서 주님 부르심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자신에게 성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느님에 대한 존재, 시간의 유한성,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삶의 가치 추구를 생각하면서, 성소 모임과 피정을 통해 수도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소 피정 가운데, 관구본부 한남동 수도원 성당에 계

신 성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칠락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백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성모님, 수도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께 저를 봉헌
하겠습니다.”

수도회 입회를 위해 여러 장애를 뛰어넘어야 했고 수많은 인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결단이 요구되었지만, 성모님께서 제 고백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셨기에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하느님께 저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자 했던 순수한 지향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입회를 앞둔 무렵, 본당의 작은 수녀님께서 “학사님, 성소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성소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선물,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 되요.”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수도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수녀님 말씀을 되새기며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도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려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의 죄와 허물, 한계와 나약함에 봉착합니다. “하느님은 영(靈)이시며”(요한 4,24) 거룩함 자체이신데, 저라는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육(肉)”(요한 6,63)이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함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는 말씀에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당신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이 세상을 잘 번성하고 잘 다스리길 원하셨으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파괴하였음을 오랜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화의 신비를 통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셨으며,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이사 43,19)는 말씀은 분명 제가 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새로운”이라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새 일, 더 이상 옛것으로 될 수 없고 늘 새로운 것으

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노래, 새로운 계약, 새 하늘과 새 땅 등의 의미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탈출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한 인간의 외적인 현실이 아니라 내적인 현실을 완전히 변형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현실은 늘 옛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내적인 일은 개개인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 사랑의 역사적인 사건과 상황,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가득히 채우는 것이기에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일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서는 저의 역사 안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겪었던 사건과 상황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는 응답할 수 있었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새롭게 수도사제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신 성령님께서 제 사제 직 가운데 함께하시어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외적인 변화

* 민수 16; 시편 33,40,96,98,144; 이사 1,37,42,43,48,62,65;
호세 12,14; 말라 3; 유딧 16; 욥기 11; 마르 16; 사도 17,24; 로마 12; 2코린 5

를 뛰어넘어 내적인 변화로의 과정에 초대하시리라 믿고 희망해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옛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는 일은 육이 아닌 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이 아닌 천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내적 성숙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며, 그분의 전적인 은총과 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은총과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매일 저 자신을 성모님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며 새로운 일을 해나가리라 결심합니다.

제가 선택한 상본은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곳에서 태어난 게르치노(Giovanni Francesco Barbieri, soprannominato il Guercino)라는 시각 예술가의 작품으로 “동정녀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그리스도(Cristo risorto appare alla Vergine, 1629)”라는 작품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전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시고 당신의 제자들도 그분을 내버려뒀던 성 토요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손상하지 않고 굳게 보전했던 단 한 분으로 성모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성모님께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저는 묵상 중에 ‘전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가장 그분과 친밀하게 사셨던 성모님께서 일생일대에 가장 기뻐하셨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셨구나!’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원죄 없는 잉태가 되시어 인간의 죄와 한계에 물들지 않으시고 세상에 새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 또한 우리 어머니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겸손, 인내와 순종 역시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삼아야 할 커다란 본보기라 믿습니다.

성모님의 모범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대로 사셨던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제 자신의 십자가를 가난하고 겸손하게 지고 ‘나’라는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새롭게 기꺼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다 성숙한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자로서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보다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5,17-18)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아니라 은총의 삶을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망, 참된 행복과 자유를 보다 많은 이와 함께 기꺼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청합니다.

제가 부디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주님의 참된 도구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삭임

김종국 요셉

당신을 찾으세요.

오늘 임의 마음이 회색빛으로 잠겨 있나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꿈이 이루어지리라 고대하던 그 날이 보이지 않을 때

임은 어디에서 누구 찾나요?

임이여! 저 숲속 나무 사이를 나는 노랑새를 보세요.

금세 부러질 것 같은 가느다란 발목의 노랑새

노래한 후 힘껏 날지요?

임이여! 많은 격려와 환호를 받고 세상에 태어나던 날

잊지 마세요.

하늘 향해 외쳤던 그 울음소리

저 노랑새의 노랫소리보다 더 웅장한 희망의 행진곡이었지요.

입이여! 이제 어깨를 활짝 펴 봐요.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쳐다보세요.
생명의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다시 자리를 박차고 사랑이신 그분께로 나아가 보세요.
사랑해 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분에게 안겨 보세요.
그 큰 사랑의 자녀가 바로 임인 줄 알아차릴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그 뜨거운 사랑에 흠뻑 취하세요.
세상이 황폐하고 살은 에는 고통의 칼바람에도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새 생명으로 삶을 키웁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2월 11일)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1854년은 성모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진리가 선포된 해입니다.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를 통해 원죄 없는 잉태 교의가 선포되었습니다.

4년 후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는 베르나데트 수비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Immaculata Conceptio)”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중 성모님과 관련된 축일과 기념일은 총 16번 있습니다. 그중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은 의무는 아니지만, 성모님 발현 중 처음으로 교회의 전례력에 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5월 13일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프랑스의 시골인 루르드에 성모님께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Bernadette Soubirous, 1844~1879)에게 총 18번 발현하셨습니다. 당시 14살의 가난한 소녀였던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첫영성체도 하지 않았는데, 여동생과 친구와 같이 땔나무를 모으던 중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마사비엘 동굴까지 가게 되었다가 정체불명의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발끝까지 내려온 하얀 드레스에 하늘색 허리띠를 두르고, 하얀 베일로 머리와 어깨를 덮었으며, 팔에는 묵주를 두르고 있고 발아래에는 노란 장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발현하신 분이 성모님인지 몰라 ‘귀부인’이라고만 말해서 본당신부는 그 부인의 이름을 계속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3월 25일 열여섯 번째 발현 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베르나데트에게 성모님께서는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페이라말(Peyramale) 본당신부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의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박한 소녀가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라는 어려운 말을 지어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58년 11월 17일에 루르드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결국 1860년 1월 18일, 루르드가 속해 있는 타르브 교구의 로랑스 주교는 "동정 마리아께서는 참으로 베르나

데트 수비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사후 54년이 지난 1933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으며, 오래도록 시신이 전혀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루르드하면 보통 기적수로 유명하지만, 이는 교회에서 발현이 인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루르드 발현이 중요한 것은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현은 신앙의 의무가 없습니다. 성체성사는 믿지 않으면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발현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신자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현 승인은 교황청이 아닌 지역 주교에게 맡겨져 있으며, 승인은 교회의 진리와 위배되지 않으니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이지 믿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세례성사를 통해 이미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 신기한 현상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현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매일의 미사성제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

수님의 몸, 성체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성모님 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영예가 성모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인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모님께 드리는 모든 공경이 결국 예수님께, 더 나아가 하느님께 향하는 것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 공경은 삼위일체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원죄 없으신 잉태께서는 성부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요, 성자의 어머니요, 성령의 정배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르드의 발현 역시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 자신을 “원죄 없는 잉태”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천사나 하와와 달리 하느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아담과 함께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하와이신 성모님께로부터 탄생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써 생명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원사업의 동반자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성모님을 통해, 성모님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새 하와이시며 궁극의 피조물, 주님의 최고 걸작품이신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님.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십니다.

성체성사와 성모님. 실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결
코 포기할 수 없는 가톨릭의 보물이며,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이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과 늘
함께하시는 우리 참 어머니 마리아 원죄 없으신 잉태와 함
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
라.” (창세 3,15)

종신서원식

일시 : 2018년 2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 : 대구 월배 원지 없으신 성모 수도원 프란치스카눔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저희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두 형제가 종신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두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복음적인 삶의 양식에 따라 충실히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말리아노 콜베 관구

관구장 정진철 마르코와 형제들 올림



김민석 안젤로 수사



신재희 베드로 수사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전국 봉사자 모임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함께하는 전국 봉사자 모임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서울 한남동 수도원 피정집에서 개최됐습니다.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관구장 정진철(마르코)신부의 의향에 따라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선교후원회, 성모기사회, 성소후원회 임원진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끈뭇꾸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창설자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강의를 통해 수도회만의 고유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 각자의 소개와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회 동반자들 간의 친교를 가졌습니다.

관구장 정진철(마르코) 신부는 “한국 교회 안에서 교구에 비해 만나기 힘든 수도회와 인연을 가지게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회를 위해 힘쓰는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 기념 인천지구 봉헌식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을 맞아 12월 2일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때 인천지구 기사회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모기사회원이 되겠다”고 봉헌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각오가 변치 않도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창세 3,15)



사제 · 부제 서품식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대구 월배 성당에서 김병훈 요한 세례자 수사, 권정대 베드로 수사가 사제품을, 고순현 마카리오 수사가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와 부제로 부르심을 받은 세 명의 형제들이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복음적인 삶의 양식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직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칸 화요 신앙 특강 신청 안내

- 기 간 : 2017년 3월 6일 ~ 6월 12일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중식 제공
40분 수업 - 20분 휴식 - 40분 수업
- 장 소 : 한남동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대강의실
- 강사진 : 강주현, 최문기, 한규희, 김용기 수사
- 강의 신청 접수 및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가능)
- 강의료 입금 계좌 : KEB하나은행 352-910019-52504
천주교곤벤뚜알성프란치스코수도회
(반드시 입금자를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해 주세요!)
- 강의료
1-4회차 통합 : 20만원
1,2,4회차 : 각각 7만원 (3주 강의)
3회차 : 5만원 (2주 강의)
- 강의는 선착순 5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회차	일 시	강 의 주 제	강 사	비 고
	3/ 6	개강 미사와 오리엔테이션	관구장 정진철(마르코) 수사	
1	3/13	프란치스칸 영성 (프란치스코의 전기와 글을 중심으로)	최문기 (마티아) 수사	
	3/20			
	3/27			
	4/ 3 (부활 8일 축제)	휴 강		
2	4/10	구원의 역설 (성조 요셉 이야기)	강주현 (사도 요한) 수사	
	4/17			관구 연피정
	4/24			관구 연피정
	5/1 (노동자의 날)	휴 강		
3	5/8	무엇을 위한 권고인가? (복음적 권고의 이해)	김용기 (대건 안드레아)수사	
	5/15			
	5/22 (석가탄신일)	휴 강		
4	5/29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한규희 (보나벤투라) 수사	
	6/5			
	6/12			종강미사



기사지 활자체가 커졌습니다

많은 회원께서 건의해주셔서 다음 비교문처럼 활자체를 크게 했습니다.

2017년 12월호 2쪽 활자크기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곧베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2018년 1월호 2쪽 활자크기

‘성모기사’를 읽는 모든 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성모님을 닮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미사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기장 성당에서 갖는 프란치스코의 밋 미사 시간이 둘째 주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수도회 이름으로 성모기사회 신규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회원께서 건의해주셔서 수도회 이름으로 신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자동이체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다음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02-745-6134)로 해주시기 바
랍니다.

● 신규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 (재) 천주교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우 리 : 1005-803-349775

신 한 : 140-012-038430

하 나 : 274-910011-99204

● 기존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 (재) 천주교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농 협 : 317-0007-3146-21

우체국 : 102566-01-005494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벼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벼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수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정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2월 통권 493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거룩한 겸손은 교만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덕들에게 바치는 인사 12)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